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2025. 9. 24.(수) 06:00 < 9.24.(수) 석간 > 배포 2025. 9. 23.(화)

지방투자기업 16개사에 961억원 지원

- 총 6,121억원 민간투자 유치 및 지방 신규 일자리 771개 창출 -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올해 제3차(7~9월)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(9.18~19일)하여, 16개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961억원(국비 587억원)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. 이를 통해 총 6,121억원의 지방투자 유치 및 771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및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,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에 신·증설하는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(4~50%)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.

이번 지원대상 기업은 투자 규모 및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투자 유치한 지방 신·증설 16개사(부산, 광주, 대전, 경북, 경남, 대구, 충북, 충남, 전북)이며, 업종별로는 자동차 6, 전기전자 2, 식품 3, 의약품 2, 화학 및 기타 3개사 등 지방의 주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.

<업종별 지원현황(국비기준)>

(단위: 개사, 백만원)

구분	자동차	전기전자	식품	의약품	화학	기타	계
지원기업수	6	2	3	2	1	2	16
보조금	15,716	970	22,162	3,091	11,765	4,992	58,696

산업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23개 지방투자기업에 1,438억원(국비: 860억)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여, 총 7,08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, 1,010 여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.

또한, '26년부터 지방투자기업 및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한도 및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	책임자	과 장	김봉석 (044-203-4420)
		담당자	사무관	강윤구 (044-203-442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APEC 2025 KOREA 10.27.~11.1. 경주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『지방투자촉진보조금』 지원제도 개요**

□ **(개념) 기업**의 **지방투자**(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신·증설 투자)에 대해, **투자액**의 **일정비율**(4~50%)을 **국비·지방비 매칭**으로 **지원**하는 보조금

* 지원근거 :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, 시행령 제23조, 지투보조금 지원기준(고시)

○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시 토지매입가액의 일부(입지보조금)와 설비투자 금액의 일부(설비보조금)를, 지방 신·증설 투자시 설비보조금을 지원

* 예산액(억원) : ('22) 1,922 → ('23) 2,031 → ('24) 2,126 → ('25) 2,26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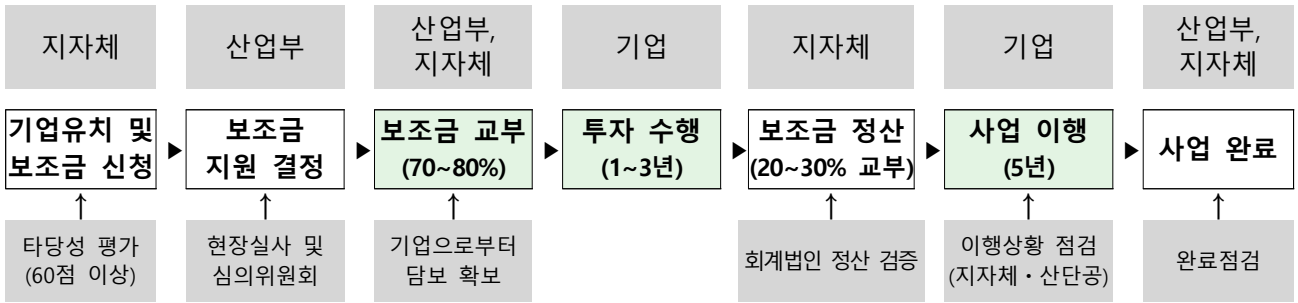
<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>

지원비율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매칭비율 (국비 : 지방비)
균형발전 상위지역	- (설비) 4%	(입지) 5% (설비) 6%	(입지) 9% (설비) 8%	45 : 55
균형발전 중위지역	- (설비) 6%	(입지) 15% (설비) 8%	(입지) 30% (설비) 10%	65 : 35
균형발전 하위지역	- (설비) 9%	(입지) 25% (설비) 12%	(입지) 40% (설비) 15%	75 : 25
산업위기 대응지역	- (설비) 12%	(입지) 30% (설비) 20%	(입지) 50% (설비) 25%	75 : 25

* 보조금 국비 지원한도 : 투자건당 150억원, 기업당 200억원

□ **(지원절차)**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,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결정

<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>



□ **(사업 성과) '04~'24년**간 총 **1,547개 기업**에 **2조 5,727억원** 투입(국비기준)

➡ 약 34.7**조원**의 **투자**와 **7만8천여명**의 **고용** 유도